

교회 목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마태복음 4:17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

교육·편의 시설 및 영·유아 도서실 개설(초·중 도서실 옆)



탁아부 세면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 19:14)

영·유아 도서실

어린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찬 교회는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마 18:5)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주중에도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발걸음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충현어린이집은 주중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천국일꾼 양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취학 아동들(3~7세)을 대상으로 복음에 기초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과 반별 넓은 교실은 강남구 내에서도 이미 수차례 우수 시설로 선정될 만큼 탁월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시설과 외부 공간을 개보수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과 금요일집회 시에 운영하는 탁아부(선교관 1층)를 통하여 아기 엄마들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령에 맞춘 1:1 아기 돌봄 시스템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과정과 편의 시설은 아기를 안심하고 맡긴 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영아부(0~3세, 제1교육관 1층)를 비롯한 유아부(4~5세,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6~7세, 제1교육관 207호)에서 실시하는 신앙 교육은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제1교육관 7층에 마련된 초·중 도서실에서 초등학교생과 중학생들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힘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연령에 맞춘 다양한 성경과 신앙 도서 그리고 영상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1교육관 7층, 초·중 도서실 옆에 새롭게 단장한 영·유아 도서실은 0~7세까지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성경과 신앙 도서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온돌 바닥을 설치하였으며 이와 보조자가 함께 오서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여가를 위한 다른 계획들을 세우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영·유아 도서실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은 복음을 향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6)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금요일집회)

이제는

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경시하며 대를 잘못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못 박혀 죽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심령과 살이 완전히 바뀌는데 있다. (골 1:19,20)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진리로 회개해야 한다. 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 주신다. (대하 7:14) 부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는 비밀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골 1:26,27)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올바른 삶만 강조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다. (요 15:5) 사실상 역사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산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또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삶을 살았다. (눅 3:21,22, 9:35)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권원이 되셨다. (히 5:7-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원칙 안에서 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 2:20)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흔적이 담겨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과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동등하게 쓰여 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이 같은 분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 일체는 각각 다른 분이시다. 이 성령께서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중요한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배움에 주신 성령님이다. (요 20:21,22)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께 속한 사람을 역시 성령으로 준비시키신다. (행 2:4; 엡 5:18)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히 이 증거를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사용되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행 4:29~31) 박해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나아가 기꺼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행 5:41, 7:59,60) 병든 사람을 고쳐 주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행 9:40) 이 성령의 역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은총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주께 완전히 항복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의 삶에는 단계가 있다. 먼저 주께로 가야 할 필요를 느껴야 하며 이로 인한 영혼의 변화가 있다. (요 7:37; 사 63:1,2)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마 5:6)가 되어야 한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 (갈 5:24) 자기 자신과 죄가 너무나 역겨워서 성령께 내놓지 않고서는 결단 수가 없어야 한다. (롬 6:13) 이 때 자신의 마음은 십자가에 고정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항상 내리질 것이다. (롬 12:1,2) 바로 이 성령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갈 3:2)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처럼 성령님을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능력의 주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옹호자(보혜사)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정, 느낌이나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바뀌어진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 삶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종만 있다. (요 15:4,5)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지키는 자의 삶 속에는 주님이 거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은 깨닫게 된다. (요일 3:24)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믿음을으로써만 가능하다. 바뀌어진 이 삶은 은총으로 풍성한 삶이며 영원을 향한 삶이다. (요 7:38, 10:4,10) 단지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를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GREAT IS THY FAITHFULNESS

⁽¹⁸⁾ So I say, "My strength has perished, And so has my hope from the LORD." ... ⁽²²⁾ The Lord's lovingkindnesses indeed never cease,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²³⁾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²⁴⁾ "The Lord is my portion," says my soul, "Therefore I have hope in Him." ⁽²⁵⁾ The Lord is good to those who wait for Him, To the person who seeks Him. ⁽²⁶⁾ It is good that he waits silently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Lamentations 3:18-26)

When asked, all Christians easily confess that God is great and faithful, but when trouble comes very few actually believe or practice it. In today's Bible verses, the prophet Jeremiah expresses his deep misery over the utter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Temple by the Babylonians. In his lamentations, which in Hebrew translate tears of sadness and trouble, he remembers the Lord's faithfulness. Although he is distraught; pressed to the point of complete despair, in his sufferings he finds hope in the Lord's loyal love. As a Christian today, you will face situations very similar to Jeremiah's. As long as you walk the narrow way here on this earth, you will have tremendous suffering. You will feel like someone has dropped you into the lion's den, like Daniel, or thrown you into a fiery furnace, like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ut God is always faithful. The Israelites endured 430 years of slavery, but God remained faithful the whole time. Any situation or any kind of suffering that comes your way on this earth, God is watching you if you are a true believer. He is with you every single minute. Do you believe it? Is it hard for you to believe? When difficulties surround you, will you cry or will you sing?

Jeremiah prayed, "My strength has perished, and so has my hope from the Lord. Remember my affliction and my wandering, the wormwood and bitterness. Surely my soul remembers and is bowed down within me. This I recall to my mind, therefore I have hope" (vv. 18-21) Everybody hated Jeremiah, even his own people. As hard as he tried to warn the Jews of God's wrath against their sins, they rejected him. He witnessed the horrible events of Babylon's victory; the starvation, the walls breached, the city secured and plundered, the Temple, palace, and other buildings burned, and surviving prisoners deported. Even though things appeared absolutely hopeless, in his humbled state his soul found hope because he remembered that in his past sufferings God was still there. Although he thought all hope was lost, he was fooled. Jeremiah was not the only one during this time period undergoing extreme difficulties. Zedekiah's sons were all killed before his eyes, and then his eyes were blinded and he was put in prison until he died. (Jer. 52:10&11) Jerusalem was looked upon with disdain, "How lonely sits the city that was full of people! She has become like a widow who was once great among the nations! She who was a princess among the provinces has become a forced laborer" (Lam. 1:1) How much hope would you have under this condition? The Jews cried, "Is it nothing to all you who pass this way? Look and see if there is any pain like

my pain which was severely dealt out to me, which the Lord inflicted on the day of His fierce anger" (Lam. 1:12) Everybody who looked at Israel saw their punishment, but no one cared. It is the same here in our city. Most of our churches are like ice with no love. Most of our pastors are like actors with no cross or no blood of the Lamb. Spiritually, all appears desolate, but God is still in this place. He still gives us His Light and His revival message.

Jeremiah prayed, "The Lord's lovingkindnesses indeed never cease,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vv. 22&23) These wonderful words of truth give believers endurance and hope. Even though we find ourselves in dark places, frightening situations, and painful circumstances, God still brings sunshine, peace, and comfort. His eternal love covers us completely. On the cross, His love makes everyone alive. He is willing to meet you in your sinfulness, in your sadness. When the tax collector cried,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God met with him and justified him. (Lk. 18:13&14) Please kneel down and humbly cry for God to be merciful to you, the sinner. He will have compassion according to His abundant lovingkindness. He loves you that much!

Jeremiah prayed, "The Lord is my portion, says my soul, therefore I have hope in Him. The Lord is good to those who wait for Him, to the person who seeks Him. It is good that he waits silently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vv. 24-26) God is always faithful to those who really trust and rely on Him. The Lord is faithful to all who place their confidence in Him, who hope in Him. The Lord is God to whoever seeks and waits for Him; to those He blesses. The Lord God is faithful to whoever seeks His salvation.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Pardon for sin and a peace that endureth, Thy own dear presence to cheer and to guide; Strength for today and bright hope for tomorrow, Blessings all mine, with ten thousand besid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The writer of this hymn used Lamentations 3:22&23 for his foundation.

My dear friend, God wants to meet with you right now. He wants to give you mercy and grace right now. Please seek after Him and He will come to you. Please wait on Him and He will bless you. Please believe in Him and you will receive eternal life. Amen. 

다음 주일 설교

오 신실하신 주

-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22)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니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애가 3:18~26)



김성완 목사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치참하게 파괴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생각하며 깊은 고뇌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라는 의미인 그의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완전한 절망의 끝으로 내몰린 채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누군가에 의해 사자굴에 떨어지거나, 사드라, 매사, 아벳느고와 같이 격렬한 품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상황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면 말입니다. 주님은 매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는 것이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까? 험거은 일들이 자신을 에워쌀 때 여러분은 슬피 울부짖는 자입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자입니까?

오허려 소망이 있사옵나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통과 재난 곧 속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허려 소망이 있사옵나" (18~21절)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동족마저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심하게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승리에 뒤따르게 될 끔찍한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굶주림, 무너지는 성벽, 포위되고 약탈당하는 도시와 불에 타버린 성전, 궁궐과 여러 건물들, 포로로 잡혀가는 남은 자들, 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서도 가난한 그의 영혼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혹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모두 그 아버지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뻔힌 채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렘 52:10,11) 예루살렘은 능욕을 당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여저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애 1:1)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서 관개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불처럼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애 1:12)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

엘이 징벌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디찬 얼음장과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무대 위의 배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도, 이런 양의 피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황폐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빛과 소망의 메시지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22,23절)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무한한 인내와 소망을 가져다줍니다. 비록 우리가 칠후같이 어두운 곳, 두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햇빛과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포곤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주님은 죄와 슬픔으로 얼룩진 여러분을 기꺼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치며 가슴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눅 18:13,14) 여러분도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실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니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24~26절)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 소망을 두며 확신하는 자에게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가 447장의 가사는 예레미야애가 3:22,23을 기초로 지어졌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께 오실 것입니다. 다른 생각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2007.1.17)

참 신자의 삶 (히브리서 10:19~25)

영원한 축음이 예정되어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히 10:7,10) 그래서 원래는 복잡한 제사방법에 따라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다.(히 10:17,18) 대제사장도 목숨을 걸고 일 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찢어지고 이제 보혈로 거듭난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신자의 특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19,20) 보혈을 통해서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신자에게 있다. 이것이 진실로 기적이 아닌가! 창조주가 흘린 보혈을 통하여 열린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특권이며 기적인 것이다. "이 몸예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창 539장)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자. 어떤 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엡 2:18) 오직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마음을 성결케 하라"(약 4:3) 아브라함은 받지 않은 믿음으로 살았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은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다. 이삭에게는 백 살을 훨씬 넘긴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이같은 신실한 믿음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의 기초는 보혈을 통해서만 나온다. 십자가에 기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참 신자는 소망을 굳게 붙든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히 10:23) 하나님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소망에 대한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되었기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전 15:58)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서 종의 명을 메지 말자.(갈 5:1) 육신의 정욕, 인욕의 정

욕, 이성의 자랑(요일 2:15,16)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소망하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벧전 1:13)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신자인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된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격려하자 참 신자는 사랑으로 풍성하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다. "계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며 보혈의 은총도 없다. 인간이 주는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초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롬 12:9)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랑과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 미워하고 적절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자.

계속해서 모이자 참 신자는 모이기에 힘쓴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 이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모임장소인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눅 4:16)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한다.(행 2:46)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터 위에 있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모여야 한다.

참 신자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 오직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들의 모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남길 것이다. "예수나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이다"(찬 204장).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권사회



이경현 (권사, 권사회장)

회장의 직분을 받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권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실수 많고 모자라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던 중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불순종의 태도가 아닌가?'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권사회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1,083명(은퇴권사 430명, 시무권사 653명)의 권사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회회의 참된 터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참교회회가 세워졌음을 믿기에 2007년 권사회의 발족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 충

만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권사들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이제 남은 날들은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아니하고(갈 5:17)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사회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매주 수요 1부 예배시간에 총동원되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의 무릎 꿇을 것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의 종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해에도 권사들의 기도와 작은 정성을 통하여 선교지에 현지 교회를 세우는 일과 후원회 젊은이들을 천국일꾼으로 기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심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연속기도는 구체적인 사역도 간절할 기도의 제단으로 드러져서 이를 통해 주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원의 예배 취소와 식단, 속소, 화장실 등을 청소합니다. 화가에 매하며 기쁨이 가득한 수고의 손길들을 통하여 후원회도원이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주시어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의 눈과 마음이 항상 참헌교회에 계시기에(창상 9:3)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며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각오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권사회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 중독 3부 2팀

- 단기선교를 통하여, 미래에 제가 무슨 일을 할 지 성령님의 어떤 도구로 쓰여질지를 응답받게 하여 주세요. (오동운)
- 단기선교를 가서 두려움없이 담대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강성민)
-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팔을 다치지 어머니가 혼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우리 팀이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 잘 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최준서)
-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선교가 되게 해 주세요. (이명운)
- 우리 팀이 말뿐과 기도와 찬양으로 생령 충만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 가는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최용현)
-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제 동생이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엄마가 선교가는 것을 무척 걱정하시는데, 주님께서 엄마 마음에 걱정 근심을 없애 주시도록 기도드려요. (오민경)
- 선교지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선교 기간 동안 가정과 직장을 지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정희 집사)
-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팀원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황선곤 권사)
- 함께 가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단기선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팀원 모두가 사고 없이 멀거진 중인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석산 안수집사, 팀장)

새롭게 거듭난 나의 마음!

선교훈련을 처음 받던 나는 불평과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부인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선교기도회를 가야 하지? 왜 CMTC를 받아야 하는 거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를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한 마음과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저는 정말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때부터 저의 마음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자기부인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훈련 받는 것도 즐거웠고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기쁜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연약하지만 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김민정(중독1부 2팀)

CMTC 훈련 메시지 ③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선교의 사명은 온 세상의 모든 종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미전도 종족에게로 눈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이말로 영적으로 이방인이요, 진리되지 않는 주님의 빛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눅 2:30~32) 지금도 매일 약 5만 명의 미전도 종족들이 죽어서 영벌의 현장인 지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선교지에 가정교회로 세워지면 그 지역을 떠나서 미전도 지역으로 향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미전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함쳤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롬 15:19,20) 우리 총현교회의 단기선교도 마찬가지이다. 미전도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2006년도의 통계로 볼 때, 세계인구 중 복음화율은 11% 정도이다. 인구상으로 보면, 아직도 복음화가 아주 미흡한 상태다. 그러나 미전도 종족에게 전해진 복음화율은 벌써 50% 이상(약 21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은 어떠한가? 세계적으로 6,000부족의 2억 2천만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4,500여 종족의 9천만 명 정도가 미전도 지역에 살고 있다. 모슬렘 세계는, 부족 세계와 비교할 때, 4배나 많은 8억 명 이상으로 종족의 모슬렘 교도들이 미전도 지역에 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수는 약 4,500명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 힌두 세계는, 모슬렘 교도들과는 달리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따라서 성경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사원과 축제 그리고 많은 신들이 난무하는 힌두교 지역에는, 아직도 약 2,000종족이 미전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종주국인 인도 땅에 현지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복음주의적인 교인의 비율이 인도에서 가장 높기도 하다. 중국 교회들은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오늘날에는 신자의 수가 약 5천만 명에 달한다. 중국 땅의 약 2,200개의 종족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이 약 1,000개 정도라고 그 수는 약 1억 5천만 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불교는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1,000개의 불교도 종족들과 큰 차이가 있다. 불교도들은 이러한 종족들의 복잡한 문화에 기초한 우상 숭배 의식과 자기 의 그리고 영혼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 불교교도들의 복음전파는 느리게 진행되며, 미얀마나 태국에서처럼 선교사들은 종종 불교인들보다 부족인들 사이에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전파 사역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 현장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절망의 땅이다. 우리는 이러한 곳에 파송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마 16:24)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빌 1:29),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자원해야 한다. (마 9:36~38) 무엇보다 영적 전쟁터인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무기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엡 6:19)

(선교위원회)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5일(월) - 1월 20일(토)	중독 2부 1팀	정창수
1월 15일(월) - 1월 20일(토)	중독 2부 2팀	정진근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대학부 3팀	한현석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외선부 2팀	이영환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외선부 3팀	김대용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외선부 4팀	오순도
1월 16일(화) - 1월 24일(수)	탁아부 1팀	정원근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독 1부 1팀	전은배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독 1부 2팀	이보신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독 1부 3팀	안원현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독 3부 1팀	한 숙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중독 3부 2팀	박석산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고등부 1팀	김영환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고등부 2팀	이양선
1월 22일(월) - 1월 27일(토)	고등부 3팀	김현배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대학부 6팀	권원섭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외선부 1팀	김윤환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직원 1팀	김창진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할렐루야찬양대 1팀	박상대
1월 24일(수) - 2월 1일(목)	대학부 1팀	이희우
1월 24일(수) - 2월 1일(목)	대학부 2팀	최세진
1월 24일(수) - 2월 1일(목)	대학부 5팀	김신진

2007년 겨울 성경학교

2007년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긴 천국일꾼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주님의 교회가 그려집니다!

예수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지난 1월 4일 겨울
성경학교를 다녀왔다.
우리 집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아
침 7시부터 일어
나 엄마와 동생들

이랑 바쁜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지하
철과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무사히
교회에 도착했다. 지하철에서 아주머니들
이 “어디 가냐?” 하시자 내가 “교회에 가
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종
은 곳에 가는구나.”라고 하셨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좋은 곳이라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저절로 좋아졌다.

소년부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하는 성경학교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그리 어렵지 않게 끝났
다. 성경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공동체
훈련과 분반 공부였다. 공동체훈련이란 소리에 처음에는
좀 떨렸는데, 알고 보니 재미있는 게임 시간이라서 즐겁게 보
낼 수 있었다. 스피드 퀴즈 때에는 나도 친구 예진이와 함께 참가할
수 있어서 성경 속의 단어를 많이 알 수 있었다. 분반 공부 때에는
반석의 뜻이 단단하고 굳센 돌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속의 구절들을 찾아 보니 예수
님과 더 가까워졌다. 나에게 겨울 성경학교에 가겠다는
결심을 굳혀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렸다. 잠시나마 예수
님과 종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
로 이 겨울 성경학교 때처럼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했
으면 좋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조예민(소년부)

처음으로 간 겨울 성경학교에서

유난히 낮을 많이 가리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은이를
겨울 성경학교에 처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해하면
어쩌냐? 낯선 것에 무서워하면 어쩌냐?” 하는 걱정을 아이보다 제가 먼저 했
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우리 다은이가 친구들과
손잡고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가끔은 음식도 부
렸지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인형극과 성경을 보면서 우리 다은이가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아 마음이 기쁩니다. 성경학교에서 만든 교
회 그림과 모빌을 방에 걸어놓고 “내가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었어, 여기 성경
책도 있고, 교회도 있지!” 하며 자랑하는 다은이를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들어 준 이 시간들이 하나 둘 모여 참 믿음이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경학교를 허락하신 예수님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정(성도, 유아부 김다은 엄마)

모든 친구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한 달 전부터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니”라는 주제로 하루 동안 성경학교를 했다. 예배드리고 성경만화도
보고 아주 큰 모자이크 그림도 그렸다. 점심식사는 식당에서 먹었는데 주
일에 먹는 국수만큼 아주 맛이 좋았다. 특히 미니 올림픽 시간을 통해서 배
운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에 대해
깨달은 것이 많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
는 곳이다. 우리가 예배와 성경공부, 활동 시간에 한아름으로
열심히 한 것처럼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가 되었
으면 좋겠다.

유수현(유년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욱의(성도, 유아부 박재현 엄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1월 4일 목요일 아침 일찍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
늘은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부 예배실에 들어
가 보니 강대상 뒤에 큰 글씨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내가 무슨 힘으
로 교회를 세우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야!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기초가 되신단정 정말 튼튼하고 힘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
면서 예수님이 튼튼하게 세우시는 우리 천령교회, 그리고 초등부가 되도
록 기도했습니다.

공과공부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함께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게신 하나님의 아들
이세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힘이 솟아나며 마음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저를 많이 칭찬해주셔서 그렇
게 마음이 기뻐한 겁니다. 비디오 시청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
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폭풍 속에도, 물로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
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친구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천령교회, 우리 초등부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
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든 친구들에게 꼭 전해야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성경학교를 마치고 해주시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노 울(초등부)

2007년을 소망하며 꿇은 무릎

2006년에도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흠쳐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한 달만도 받은 게으름 풀' (마 25:30)을 책망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떠올라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 번 구한다. 이제 시작된 2007년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

종교개혁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모두 들어와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교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각각의 지체임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에 모두가 전력하여 파송하는, 파송받은 선교사로 주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음전파의 공동체, 그리하여 십자가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됨과 낙오됨이 없이 한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를 더욱 알아가는 은총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며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의 명을 메고 주 안에서 참 힘을 누리게 하소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평소 애용 하소하고 여기는 일들을 너무 쉽게 사단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새해에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재방같은 영적인 위기가 나에게서는 없기를 소원하며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믿음이지만 어떤 경우든 보혈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무릎 꿇는 2007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문영규(안수집사, 3교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도록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입으로만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가 '대학부 3교 여는 마당' (신인생을 위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거기 싫었지만 부모님을 봐서 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으며 보니, 여는 수련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녁집회 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앞에 있는 팀원 형이 말하였습니다. “준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놔!”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어서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준아, 이따가 정말 너가 기도하고 싶었지? 겨야, 분위기 때문이라고 느껴질지도 몰라. 하지만 그제 정말 너에게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뚫렸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말씀 후 기도가 시작될 무렵, 저는 형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기도가 시작되고 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갑자기 울음이 터졌고,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감사드려요. 예수님! 이런 저를 아직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목사님께서 다른 기도제목을 주시며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동안 망설였습니다. 뒤에 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동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정말 많았지만 여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당할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 무릎 꿇고 주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속심 번 외치며 울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워 저는 기도와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싫다”고까지 한 죄된어린이 저를 아직까지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수련회가 끝나 집에 돌아갈 무렵,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만난 주님인데, 집에 돌아와서 예전의 나로 돌아가버리면 어찌나?’ 하고 두려워서 또다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씻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자는 중에 예수님 닮은 생각이 한가씩 살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아는 찬송가라곤 300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뿐이었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저는 가슴이 저러왔습니다.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이 찬송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찬송가로 온 저를 주님이 반겨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주께 드리는 은혜로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박 준(대학부)

감동과 은총의 2007년 첫 예배

나는 남편과 함께 남대문시장에서 여성복 도매매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는 의지로 가득했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8월, 남편이 팔기 암진단을 받고 3개월 후에 예수님 곁으로 갔다. 남편은 원래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이 시간에 남편은 매일 눈물로 회개했다. 투병하는 동안 기도하는 것을 제일 좋아했고, 시간만 나면 함께 찬양을 불렀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남편은 천국에 갔다.

이미 예정된 남편의 죽음이었지만 나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까?’라고 원망도 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을 정리하느라 번 역이 예수님이셨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분들의 기도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게 되었다. 이때 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내가 세상을 돌아보면 ‘나심’을 하게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이 진리를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남동생을 전도했다. 처음에는 합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동생은 의외로 순순히 교회에 나왔다. 나중에 동생의 말을 들으니 누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교회를 나갔느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교회를 오니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다고 했다. 그 후 율예와 조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남동생과 여조카가 새해를 받았고 율예가 학식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껏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나의 작은딸도 학식을 받게 되었다.

이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2007년 첫 예배는 정말 큰 감동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성”과 “할렐루야”를 부를 때 교회는 마치 거대한 찬양대와 같았다. 그 감동을 나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다 느꼈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들으시고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으리라 믿는다. 더욱 감사한 일은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사바님, 아با를 잃은 우리 작은딸, 아빠보다 삼촌을 더 따르던 조카가 예배에 참석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희망찬 새해 첫 예배였다. 그것은 큰 은총이었다.

황경분(집사, 1교구)

♡ 새 가족 속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6	김정자	15	예배다	박민기(1)	108	조경혜	16	청년2부	정금수(16)
97	정말림	3	청년2부	박민기(1)	109	김희진	19	중동3부	김영재(18)
98	김은순	2	청년1부	하종철(1)	110	김수자	19	중동3부	노영민(17)
99	오창호	19	청년1부	정철규(13)	111	박수주	19	중동3부	김경남(16)
100	정미옥	14	청년2부	이명관(18)	112	이진호	19	대학부	박경희(14)
101	이혜영	1	청년1부		113	김현진	19	고동부	권은미(1)
102	김은성	16	청년1부	김현준(16)	114	김동진	12	청년2부	이민숙(18)
103	최은희	15	청년2부	조영환(4)	115	남정환	19	대학부	남정혜(18)
104	이명규	4	청년2부	여국진(4)	116	장예림	19	청년1부	
105	이명주	19	대학부	이성희(18)	117	우백혜	7	소망부	김영희(7)
106	홍지은	2	청년1부	최수재(2)	118	서인혜	7	소망부	김영희(7)
107	이현숙	16	청년2부	정금수(16)					

※ 출생연도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

